

시민을 지키는 당신이 진정한 Hero!

아무리 강한 사람도 흥기를 휘두르는 괴한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승실대입구역장을 맡고 있는 김영구 씨.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괴한과 대처하여 부상을 입으면서도 맨손으로 제압하였고, 역에서 의식을 잃은 승객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도 무릅쓰는 김영구 씨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다.

문지 마 흥기 난동의 위기 현장

2011년 10월, 승실대입구역의 아침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오고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대학생들이 플랫폼을 빠져나와 뛰어가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느라 급히 뛰는 사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뛰다시피 걷는 사람 등이 오고갔다. 역장은 평상시처럼 역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승강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멀리서 찢어지는 듯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한 객차의 열린 문으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고 있었다. 객차 안 바닥에는 붉은 피가 푹푹 떨어져 있었고 허둥대는 사람들로 전쟁터 같았다.

역장은 황급히 객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눈앞에는 30cm가 족히 넘어

보이는 회칼이 번뜩이고 있었고 그 칼보다 더 번뜩이는 광기 어린 눈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다 죽여 버리겠어!”

남자는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고 이미 시민 한 사람이 괴한의 칼에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다. 칼을 쥔 남자와 마주서자 역장은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숨이 막혔다.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괴한의 관심을 자기에게 끌기 위해 애썼다.

시민들의 웅성거림에 칼을 든 괴한은 더욱 흥분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거기에 대고 역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달래기 시작했다. 1분, 2분, 3분... 1초가 마치 한 시간인 양 더디게 흐르는 가운데 설득 작전을 펼쳤지만 정신착란증을 앓고 있는 괴한은 더욱 날뫔 뿐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고 판단한 역장은 괴한의 빈틈이 생기기를 엿보다가 기회를 포착하고 달려들었다.

먼저 칼을 든 괴한의 손을 비튼 후 엎어치기 한 판! 그 순간 괴한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몇몇 시민들이 달려와 괴한을 제압하는 것을 도왔다.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아침 시간이 아우성 속에 가고 있었다.

책임감은 칼보다 강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용기가 아니라 책임감이었을



지하철 승실대입구역 김영구 역장



그동안 받은 수많은 표창장. '부끄러워서' 집에도 가져가지 않고 책상 밑에 넣어두기만 했던 것을 꺼냈다.

거예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찢려 병원에 실려 갔는데 혈압이 210이 나 나오더군요.”

칼을 든 문지 마 흥기 난동의 위기 현장에서 맨손으로 몸을 날려 괴한을 제압한 사람은 바로 승실대입구역의 역장 김영구 씨이다.

공직에 몸을 담은 지 올해로 31년째. 그의 공직생활은 부지런함과 책임감으로 푹푹 뭉친 세월이었다.

현재 그는 남성역과 승실대입구역을 맡고 있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출근은 늘 30분 먼저이고, 역 입구에서부터 승강장,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 도어까지 직접 꼼꼼하게 살피느라 분주하다. 평소에는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유순한 얼굴로 이곳 저곳을 살피며 맡은 일에 열심일 뿐이다.

그러나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나서서 괴력을 발휘한다. 그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지하철역이 아니라 역을 오가는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책임감으로 푹푹 뭉친 사람이기에 문지 마 흥기 난

동자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 들 수 있었던 것이다. 문지 마 흥기 난동자를 제압한 일은 1년 후 김영구 씨가 국가의상자에 지정되면서 더욱 세상에 알려졌다.

김영구 씨는 2013년에도 역 입구에 쓰러진 시민을 응급 처치하는 등의 선행을 보여 국토교통부장관상, 자랑스러운 구민상 등 각종 상을 받은 적도 있다.

눈술시험에 지각한 아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뛰어 올라온 아버지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김영구 역장이 발견하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119구조대와 함께 외부로 옮기는 선행을 한 것이다.

김영구 씨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역장님이 흥기 난동자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말을 듣고 역장님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겠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시거든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거, 사실 주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역장님은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땀을 푹둹 흘리시면서 10분이나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시는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지하철역무원은 책임감과 친절,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 하는 자리라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많다”고 한다.

김영구 역장은 포상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기부하곤 해서 더욱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오늘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평균 5만명이 이용하는 승실대입구역을 지키고 있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승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다. 지하철이 땅 밑을 다니는 운송수단이므로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승객들 스스로 안전을 위해 기본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 “역에서 보낼 시간이 이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는 그는 우리 사회를 밝히는 ‘생활 속의 작은 영웅’임이 분명하다. ✨

Interview

김영구 / 지하철 승실대입구역 역장

“시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Q. 지하철 역 관리에서 어떤 것을 제일 중시하십니까?

A.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판교 공연장 사고 등 특히 안전 사고가 많았잖아요. 아무리 안전을 외쳐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지켜지기 어려운 게 안전입니다. 시민들 스스로도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하고 우리 같이 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늘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Q. 묻지 마 살인 범인과 대치하셨는데, 어떤 점이 힘들셨어요?

A. 괴함과 마주했을 때 몸이 뻗뻗해지고 숨도 못 쉬었죠. 그런데 사건 당시보다 그 이후가 더 힘들었어요. 트라우마가 심했죠. 정육점 칼만 봐도 그때 일이 생각나고 공포가 되살아났거든요. 자꾸 괴함과 대치하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Q. 후유증도 심하게 겪으셨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 또 잡아야지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게 역장의 사명입니다. 저도 개인의 신분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 버릴지 모르지만, 역장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죠. 내가 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지하철 안전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A. 우리 승실대입구역에는 특히 아침 시간에 학생들이 많은데, 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지하철은 땅 밑의 운송수단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승객들도 ‘기본’을 지켜주면 좋겠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 서기를 지키고 비상 장비 사용법을 익히는 것,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니까요. 지하철에서는 영웅 한 명보다 모두가 지키는 ‘기본’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